

미 항공3사, 중국 압박에 '대만' 표기 삭제

아메리칸항공 등 미국 항공사 3곳이 대만을 별도 국가로 표기하지 말라는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미국 민간 기업들이 중국의 압박에 '굴복' 한 사례로 볼 수 있어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중 대결 구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25일 '세계일보'에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외국 항공사 36곳에 공문을 발송해 중국 시간으로 7월 26일 0시까지 대만을 별도의 주권지역으로 표기하지 않거나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명칭 변경을 마치라고 요구했다.

그 결과 아메리칸항공과 델타항공, 하와이항공 등 미국 항공사 3곳이 이 요구를 수용했다. 아메리칸항공과 델타항공의 웹사이트에서는 타이베이 공항 코드명과 도시명이 표시됐지만 '대만'이라는 단어는 사라졌다. 하와이항공도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를 '타이베이, 타이베이'로만 표기했다. 그러나 유나이티드항공 웹사이트에는 '대만' 단어가 남아 있다.

아메리칸항공 측은 "다른 항공사처럼 아메리칸항공은 중국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명칭 변경을 시행하고 있다."며 "항공여행은 글로벌 비즈니스이며, 우리는 취향하는 국가의 규칙들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지난 5월 초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중국의 요구를 '전체주의적인 헛소리'라고 비난하며 중국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후 미국 항공사들은 중국 당국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중국이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을 한 것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보고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에어캐나다와 루프트한자, 브리티시항공 등 주요국 항공사들도 중국의 보복을 우려해 웹사이트에서 '대만' 명칭을 지웠다.

영국에서 반무슬림 공격 사건 급증

지난해 영국에서 이슬람 혐오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따르면 영국 내 반 무슬림 공격을 추적하는 단체 Tell MAMA는 최근 2017년의 '거리 수준' (온라인이 아닌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 증오 사건 신고 중 사실로 확인된 건수가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젊은 백인 남성이었으며, 피해자는 아시아 여성이 많았다. Tell MAMA의 이만 아타는 젊은 가해자에 의한 '공격적인 사건' 증가는 영국 내 지역사회 화합 조성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또 하나의 징후라 밝혔다.

Tell MAMA 측에 따르면 2017년에 받은 영국 내 반 무슬림 혹은 이슬람 혐오 사건 신고 중 사실로 확인된 건이 1201건이었다. 이중 3분의 2 이상이 거리에서 발생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온라인 소셜미디어에

서의 증오 사건은 폭이 더 작긴 하지만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16%). Tell MAMA는 "특히 신체적 공격, 위협적 행동, 차별 등의 학대를 포함한 심각한 오프라인 사건들이 현저히 늘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반 무슬림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런던(34%)이었다. 반 무슬림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범비는 공공 장소(34%)와 대중교통(13%)이었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었으며 26~35세의 아시아계였다. 가해자는 대부분 13~18세의 백인 남성이었다. Tell MAMA 측은 젠더 기반 차별과 이슬람 혐오가 오프라인 반 무슬림 증오 사건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 무슬림 증오 사건 피해자들은 차별 행동을 고용주나 경찰에게 신고해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많았다고 Tell MAMA에 전했다.

콜롬비아 마약 갱단, 경찰 탐지견 제거에 현상금

콜롬비아의 마약 갱단이 경찰의 마약 탐지견을 제거에 현상금을 내걸었다.

지난 27일 '연합뉴스'가 콜롬비아 경찰 정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강력한 마약 조직인 우라베노스는 '그림자'라는 뜻의 솜브라(Sombra)라는 이름을 가진 6살짜리 독일 셰퍼드 암컷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7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솜브라는 우라베노스 조직의 코카인을 속속들이 적발해 조직의 두목인 다이아로 안토니오 우수가 '눈엣가시'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솜브라는 쾌속정 또는 잠수함까지 동원돼 중미 지역에서 미국 등으로 코카인이 밀매되는 대서양 연안의 투

르보 등지에 배치돼 맹활약을 펼쳤다. 투르보에서 5.3t의 코카인을 찾아내는가 하면, 수출용 차량 부품 더미 안에서 4.3t의 코카인을 탐지하기도 했다. 콜롬비아 경찰은 갱단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솜브라를 최근 수도 보고타의 국제공항으로 이동해 배치, 조련사와 함께 솜브라를 '경호'하는 추가 인력을 투입했다.

우라베노스 조직은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 공공연하게 돈을 거는 행위를 한다. 2012년에는 경찰관 1명을 죽이는데 500달러를 주겠다고 적힌 우라베노스의 전단이 발견되기도 했다.

세계 최대의 코카인 생산지인 콜롬비아에서 한 해 생산되는 코카인 분량은 910t에 달한다.

뉴욕 맨하탄 백천 철학원이 20년만에 치노힐로 이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예언가 백천 운명철학원

(한국역술인협회 미국 지구 회장)



백천 선생 (白泉 先生)

- 1976. 한국역술인 협회 정회원
- 1977. 대한 경신연합회 중앙감찰
- 1986. 세계 예언자 대회 동경
- 1989. 국제 예언자 대회 홍콩
- 2008. 한국역술인 협회 부회장
- 2008. 제20회 서울 국제 역학대회 미국 대표로 참석하고 돌아옴.

영적과 학술을 겸비한

백천선생 감평

남녀·초혼·재혼·사주·궁합·택일 전문

숫자운·색깔운·집터·사업터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909)347-0505



치노힐 15085 Calle Verano
Chino Hills, CA 91709
(909)347-0505

엘에이 3600 Wilshire Bl. #918
Los Angeles, CA 90010
(213)500-6363